해진공, 인도 항만개발 투자 타진… 아시아 물류협력 강화

싱가포르-인도 고위급 대표단 만나
해운·항만·물류 협력 확대 방안 논의
안병길 사장 "현지 진출 다각적 지원"



해양진흥공사와 인도정부 대표단 간 양자면담 모습. /해진공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아시아 주요국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해진공은 최근 싱가포르 항만청장, 인도 장관 등을 차례로 면담하고 사업 발굴에 대해 논의했다.

해진공은 지난달 26~27일 이틀간 부산에서 아시아지역 주요 해양국인 싱가포르·인도의 고위 대표단과 면담을 통해, 해운·항만 협력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26일 싱가포르 해사항만청장 등 대표단과 면담하고, 양국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계획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싱가포르 해사항만청은 해양산업의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현지 투자 유치와 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다. 이에 해진공은 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운·물류 거점인 싱가포르에 진출하려는 국내기업들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27일 부산에서는 인도 항만해운수로부 장관 및 고위급 대표단과 만나 해운·항만·물류 인프라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적선사인 HMM 경영진이 함께 참석해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바드반(Vadhvan) 항만 터미널 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 방안을 비롯해 양국 해운사 간 네트워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바드반 항만 개발 사업은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항만 개발 사업 중 하나다. 향후 인도의 수출입 물동량 처리와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 확장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바드반 항만 터미널 개발 사업에 대한 해진공과 국적선사의 투자·참여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한국·인도 간 교역 확대에 따른 해상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해상 운송망을 구축하기 위해 선사 간 네트워크 확대, 항로 및 물류 분야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번 논의는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인도의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인도 정부는 국가 경제 성장의 일환으로 '인도 해양 황금기 비전 2047'을 선포하고, 해운·항만·조선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양 인프라 확충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경제성장의 주요 과제로 삼고, 한국의 선진 해운·조선산업 역량을 활용한 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한국과는 '항만개발 및 관련 해양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해양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인도는 한국의 선진 해운·조선산업 역량을 활용한 자국 해양산업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싱가포르와 인도는 글로벌 해운·물류 네트워크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국가로, 우리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파트너"라며 "해진공은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aT, 크루즈 선상에 'K-인삼 홍보관' 오픈

홍삼 차·절편 시식, 건강강좌 운영
한국 전통문화 프로그램도 마련



크루즈 선상에서 인삼 홍보하는 모습.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대형 크루즈 선상에서 K-인삼 홍보 행사를 가졌다.

aT는 지난달 하순 한국 여수·제주와 중국 칭다오와 오가는 크루즈 '아이다 지중해호'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산 인삼의 우수성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한·중 노선 크루즈와 연계해 처음 추진된 K-인삼 홍보사업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중국 중장년층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산 인삼의 건강한 이미지를 전파하는 동시에 신규 수요 발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행사가 열린 아이다 지중해호는 최대 268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8만5000톤(t)급 대형 크루즈선이다. 칭다오에서 출발해 한국 여수와 제주를 방문하는 노선으로 운항했다. aT는 10월 20~24일, 24~28일 기간 총 2회에 걸쳐 선상 홍보행사를 진행했다.

aT는 크루즈 내 주요 공용공간에 K-인삼 홍보관을 마련하고 뿌리삼·홍삼농축액·홍삼분말 등 다양한 한국산 인삼제품을 전시했다. 관광객들이 홍삼차와 홍삼절편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시음·시식 프로그램도 운영해 한국산 인삼의 다양한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국 중장년층 관광객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K-인삼 건강강좌'를 개최하고, 인삼의 건강상 이점과 연령별·대상별 제품 선택 방법 등을 소개했다. 강좌에서는 홍삼 홍보영상 상영과 제품 시음·시식을 병행하고 참가자들에게 홍삼제품을 증정해 한국산 인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였다.

우리 전통문화를 접목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홍삼 캐릭터 포토존을 비롯해 한복 입어보기, 전통부채를 활용한 기념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광객들이 한국문화와 함께 K-인삼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크루즈 객실 1057개에 홍삼제품 안내 전단지와 체험용 홍삼차 또는 홍삼음료를 비치해, 객실에서도 한국산 인삼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선내 안내방송과 LED 홍보영상, 주요 이동 동선의 홍보물 설치는 물론 중국 여행사의 위챗 공식계정과 샤오홍슈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업 혁신 이끌 신지식농업인 5명 선정

농식품부, 기술로 농업 부가가치 높여

농림축산식품부가 5일 이른바 '신지식농업인' 5인을 선정·발표했다. 이는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을 일컫는 용어다.

정부는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훈령)'에 따라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발해 오고 있다. 지난 1999년부터 올해까지 누계 503명을 선정했다.

지역별로 경북에서 3명, 경기·경남에서 각각 1명씩 선발했다. 분야별로는 과수·가공 등이며, 올해는 가공·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성과가 나왔다. 청년농 등 젊은 농업인의 활약도 돋보였다.

경기 평택 소재 농업회사법인 아인스의 이진영 대표는 곡물 부산물을 활용한 저당화·발아 공정 기술을 개발했다. 곡물의 기능성을 높이고 생산비 절감과 판매단가 상승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계약재배 확대와 해외 수출을 통해 국내산 곡물 소비량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경북 영천의 영농조합법인 위와이너리의 박진환 대표는 무가당 양조 기술을 개발해, 고품질 와인 생산과 포도의 부가가치 향상을 이뤄 냈다. 와인 체험프로그램 및 관광 연계를 통해 지역 특산물 소비 확대와 농촌융복합 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다.

경북 예천 영농조합법인 농부창고의 황영숙 대표는 저온압착 참기름·들기름 제조 기술을 개발해, 유해물질 발생을 줄이고 영양소 보존성을 높였다. 또 지역농가와의 계약수매 및 해외 수출을 통해 국산 참깨 소비 확대 및 지역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경남 거창 농업회사법인 남부파머스의 윤의식 대표는 청년농업인으로 저온농축 공법을 개발해, 초당옥수수의 맛과 영양을 보존하고 상품성을 높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부산항만公, 글로벌 항만과 AI 혁신 공유

항만 디지털 협의체 총회 참석

부산항만공사(BPA)가 세계 주요 항만들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항만운영 혁신 및 디지털전환 전략 등을 논의했다.

공사는 모로코 탕헤르에서 열린 세계 주요 항만 간 디지털 협의체 '체인포트'(chainPORT)의 제11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30일 탕헤르메드항만공사가 주최한 이 행사에는 세계 각국 항만 관계자들이 참석해 AI 기반 운영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항만의 AI 도입과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체인포트란 세계 주요 항만들의 디지털 전환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독일 함부르크항만공사 주도로 설립된 세계 항만 협력체다. 올해 총회에는 부산항을 비롯해 함부르크항, 로테르담항, LA항, 싱가포르항, 바르셀로나항, 앤트워프-브뤼헤항, 예테보리항, 상하이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항만 운영 데이터를 AI와 접목해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AI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APMT(덴마크 머스그룹 계열사)와 엔비디아 등 관련 기업들은 운영 혁신 사례와 기술적 기반을 소개하고, 항만 관계자들과 AI 도입·활용 전략을 논의했다. 부산항만공사는 글로벌사업단장이 토론에 참석해, 항만 안전관리와 운영 효율화 등을 위해 추진 중인 AI 활용 사례와 도입 방향을 공유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총회는 부산항의 AI 추진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항만들의 혁신 경험으로부터 항만 운영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며 "이를 부산항의 여건에 맞게 접목해 운영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축평원, 한우·계란 등급판정에 AI 활용

농식품 정책콘서트 최우수상 수상

축산물품질평가원이 '2026년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농식품 정책콘서트는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농식품 혁신 정책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며, 현장 투표를 통해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정책의 성과와 가치를 국민에게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지난 4일 개최된 행사에서 축평원은 '등급판정의 눈, AI로 전환하다: AI가 본 축산물 등급, 소비자가 신뢰하는 품질' 사례를 발표했다.

기존 숙련기술 및 전문노하우를 가진 축산물 품질평가사가 수행하던 등급판정 업무에 AI·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한 혁신 성과다. 대표 사례로 ▲한우 사육, 경험에 '데이터'를 더하다 ▲돼지고기, 내 입맛대로 고르는 맞춤형 소비 ▲정밀한 계란 등급판정과 365일 품질관리 등을 제시했다.

이들 사례는 업무 효율성 개선 및 데이터의 객관성 확보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국민식탁 대표 식재료인 소고기·돼지고기·계란 등 우리 축산물에 대해 AI 등급판정을 적용해 품질평가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돼지고기의 경우, AI 장비 도입 과정에서 국산 기술을 활용해 15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란은 AI 품질평가로 최대 64%의 시간 단축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인 점이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축산유통 현장에서 축산농가·소비자 만족도는 '축산물등급제 정책만족도' 90점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증명했다. 정부부처에서 대외 인정을 다수 획득한 점도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세종=김연세 기자